전북대, 시설확충 500억원 확보

학생자치타운 · 실험동물센터 · 약학대학 증축 등 3건
구성원 노력 · 정치권 지원 한몫…교육여건 개선 탄력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 대부분이 학생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에 관한 것으로 추후 전북대의 교육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통과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대 학생자치타운(학생회관)을 비롯해 실험동물센터, 그리고 국회에서 추가된 약학대학 증축 등 3건이 본예산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북대가 확보한 예산은 학생자치타운 개축을 위한 220억 원을 비롯해 실험동물센터 신축 160억 원, 약학대학 증축 144억 원 등 524억 원 규모다.

특히, 김동원 총장은 학생타운 신축 및 노후 환경 개선을 취임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대학 구성원, 정치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올리게 됐다.

현재 노후화로 이용에 어려움을 주는 학생회관의 경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학생자치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

BTL 방식으로 건립될 학생자치타운은 현재 1·2 학생회관 통합, 신축을 통해 학생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복지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개축될 예정이다.

또한 160억 원이 확보된 동물실험센터 건립은 현재 공대와 농생대, 자연대, 치대, 환생대, 수의대 등에 있는 소규모 동물실험 시설을 '동물실험센터'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의료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 동물실험 수행이 가능한 전문 실험동물센터로 거듭나고, 나아가 전북 내 표준화된 거점센터 건립으로 선진적 연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학대학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약대 유치 이후 1년 여 동안의 노력 끝에 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결실을 보게 됐다.

전북대 약대는 144억 규모의 예산으로 2023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단독 시설을 확보하게 됐다.

약학대학은 전북대 메디컬컴플렉스 내에 위치한 생명과학관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해 약학대학 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30년 숙원사업으로 2020년 신설된 전북대 약학대학은 약학대학 교육·연구시설 증축 및 시설재배치 사업이 국회에서 2021년도 국립대학 시설사업으로 통과됨에 따라 약학대학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약학교육평가인증 시설 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필수 공간 확보로, 추후 학생 및 교원의 증가, 특히 2022년 신·편입학에 대한 대응까지 한결 가벼워졌다.

김동원 총장은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민들의 지지, 김성주·윤준병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든든한 지원이 조화를 이뤄 내년 예산안 반영에서 우리대학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학생 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 등 대학 본연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과도 따뜻하게 동행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씨름부, 은메달 획득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서 송대웅 · 김상현 선수

제17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청장급 송대웅, 장사급 김상현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제17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호원대 씨름부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녕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청장급(-85kg이하) 송대웅, 장사급(-140kg이하) 김상현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대웅 선수(2학년)는 준결승전에서 영남대 이현서 선수를 잡채기 기술로 제치고 대회 이변을 일으키며 입학 후 첫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대학 장사씨름대회 우승자인 울산대 이용훈 선수와 대결에서 아쉽게 2대1로 역전패했다.

이후 김상현 선수(2학년)는 준결승전에서 2019 대학 장사씨름대회 우승자인 대구대 조영탁 선수를 빗장걸이 기술로 승리하며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회장기 장사씨름대회 우승자이며 이 체급 최강자인 영남대 박찬주 선수와 대결을 펼쳤지만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온형준 감독은 "코로나19로 인해 씨름장 사용이 어려워 훈련에 집중하지 못해 교내에서 체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이번 동계훈련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해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방학 프로그램 참가학생 모집
정읍학생복지회관, 11일부터

정읍학생복지회관(관장 한재규)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유익한 방학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샘골 겨울도서관학교', '샘골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샘골 겨울도서관학교'는 2021년 1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5주 동안 ▲Talk Talk 영어동화(초등 1~3), ▲왁자지껄 책놀이터(초등 1~3), ▲아나운서 스피치교실(초등 1~6), ▲상상플러스 3D펜교실(초등 1~6), ▲뚝딱뚝딱 목공교실(초등 4~6) 등 5개 과정을 각 10회씩 진행된다.

'샘골 겨울독서교실'은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 '책 속 동물과 함께, 도서관 ON'이라는 주제로 도서관 이용교육 및 주제 관련 책 읽기, 다양한 독후활동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독서교실 운영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한 우수학생에게는 상장과 상품도 시상할 계획이다.

참가학생은 11일부터 회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15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정읍학생복지회관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프로그램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소수 인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어린이들이 유익하고 건강한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신교승)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다문화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물품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다문화가정에 방한물품 전달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센터장 신교승)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다문화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한물품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센터는 마스크 및 이불 전기요 등의 방한물품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센터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선정 된 다문화가정 6가구에 방한물품을 나눠줬다.

신교승 센터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외되고 있는 이웃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다" 며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며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전라북도-전북대 3자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겨울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공 · 사립 교원 명퇴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에 나섰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 시행계획을 공고, 7일부터 11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1년 2월 28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예산 및 교원수급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규모를 결정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1년 1월 중에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최승훈 산학협력단장 장관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최승훈 산학협력단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전주비전대학교에 따르면 최 단장은 최근 전북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계분야의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신기술 연구, 중소기업 애로기술지도 및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해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받았다.

한편 최승훈 단장은 중소기업과 연계한 산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기계관련 시스템의 구조와 성능 개선은 물론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수행중인 교육부 주관의 LINC+사업을 수행하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그린맥스, 시몬 등 도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산학연협력사업에 참여,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제품을 국산화시키고 특허 등록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매출 증대 등 산학협력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이끌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